

주일설교 요약: 신화수

하나님이 주신 평안

사무엘상 7:12-14

에벤에셀은 사무엘이 전쟁을 하고 난 뒤 반석에 지은 이름이었습니다.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지만, 우상을 숭배했습니다. 그들은 성전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가치들도 받아들였습니다.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였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해야하듯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은 섬길 때 하나님 외 다른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.

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셔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덮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기를 잃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"도움의 돌"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 반석을 세웠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.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우리의 에벤에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안,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에벤에셀입니다. 삶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면, 하나님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.